

10-17 (통권 제 17 호)

2010. 07. 06



동북아 REVIEW

차이완(Chiwan)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



□ 차이완(Chiwan)¹⁾ 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

○ (개요)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ECFA(Economic Comprehensive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

- 중국과 대만 간 공식적인 경제협력체제 구축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제도화한 것임
 - ECFA는 年内에 양안(兩岸)간 입법부의 동의를 획득하고 6개월간의 실무 협상기간을 거쳐 공식 실시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말 양안은 '3통²⁾'에 합의한 이후 1년 반 만에 ECF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경제권의 형성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섬
 - 중국은 이미 ASEAN, 홍콩, 마카오와 FTA 혹은 동등한 성격의 무역 자유화 협정을 체결함

○ (주요내용) 중국과 대만 간 ECFA는 양안간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 **상품무역** : 중국과 대만은 상품 무역 관세 인하와 관련하여 『조기수확프로그램(EHP : Early Harvest Program)³⁾』을 적용하기로 합의함
 - 중국은 대만 산 제품 539개 품목에 대해, 대만은 중국산 제품 267개 품목에 대해 EHP를 적용하여 2년 내에 영(零)관세를 실시하기로 함
 - 중국은 현 관세율이 5% 미만인 EHP 적용 대만산 제품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⁴⁾부터 즉각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임⁵⁾
 - 중국은 농산품, 화공제품,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방직, 경공업, 금속, 정밀기기 및 의료 분야에서 대만산 제품을 EHP에 포함함
 - 한편 대만은 중국 산 석유화학, 기계, 방직 등 4대 분야에서 267개 품목을 EHP에 포함시킴

1) 차이완은 China+Taiwan의 합성어로, 한국과 일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음.

2) 중국과 대만은 2008년 12월 15일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신(通郵)'으로 대변되는 '3통'에 합의함.

3) 쌍방의 실정을 고려하여 관세 양허가 가능한 일부 품목부터 관세 인하, 무관세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의미함.

4) 2010년 하반기 ECFA가 중국과 대만 입법부의 인준 절차를 무사히 통과함을 전제로 함.

5) 양측 입법부의 인준 절차가 2011년 상반기로 지연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무관세 조치를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 **서비스 무역** : 중국과 대만은 서비스 무역 분야에 대해서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EHP를 적용함
 - 중국은 대만에 대해 회계(accounting), IT, 의료 및 금융 등 11개 분야에 대해 개방하였으며,
 - 대만은 중국에 대해 금융, 운송 등을 포함한 9개 분야를 개방함
- **투자** : 중국과 대만은 투자 측면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협의 공간을 남겨 둠
 - 중국과 대만은 쌍방 간에 투자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합의함
 - 또한 쌍방 간에 상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함
- **경제협력** : 중국과 대만은 ECFA 실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방면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쌍방은 지적재산권, 금융, 무역촉진, 세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된 중대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간 협력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상호 간에 경제단체들의 상설 대표기구 설립을 허가함

○ (대만경제에 대한 예상 효과) ECFA의 체결로 대만은 對 중국 수출 확대와 본토(本土) 자본 유치에 가능해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예상

- ECFA의 체결로 대만의 전체 수출 중 자유무역체제 적용 비중은 1% 미만에서 6%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⁶⁾
 - 2009년 기준 대만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한국은 전체 수출에서 자유무역체제 적용 비중은 37.8%, 동남아는 31.7%, 일본은 16.3%에 달함
 - 또한 중국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과 투자 제한 완화로 인해 중국 자본의 대만 진출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6) "ECFA 시대의 도래", Financial Times 2010. 6. 30 기사.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대만 간 ECFA 발효는 대만 GDP를 0.16% 견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홍콩을 포함할 경우는 2.0%, ASEAN, 한국, 일본을 포함할 경우는 3.42%까지 견인 가능함
 - 따라서 대만은 향후 대중화권(大中華圈)을 넘어 ASEAN, 한국, 일본과의 FTA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대만의 교역 조건 개선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 ECFA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對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됨
 - EHP 적용 대상 품목이 대만의 對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1%에 불과하고 2년간에 걸쳐 영세화(零稅化)가 추진될 것이므로 그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ECFA를 기반으로 중국과 대만이 전면적 경제협력 관계(완전한 FTA)를 구축할 경우, 한국에는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것임
 - 對 중국 수출에 있어 한국의 상위 20대 수출 품목 중 14개 품목이 대만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상무부의 담화문에 따르면, 금번 ECFA는 양안간 전면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궁극적 목표는 자유무역체제의 정착임

○ (시사점) 차이완 시대의 도래는 한국경제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므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교역 환경 개선** : 정부는 중국과의 교역환경 개선을 위해 한-중 FTA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고, 아울러 중화권 시장에 대한 침투력을 강화해야 함
- **기술적 우위 유지** : 우리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유도해야함